청년,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최광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를 전후로 한 청년기는 언제나 도전과 고난, 희망과 절망이 함께 뒤섞여 있는 시기로 그려진다. 사회는 종종 청년이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거한 채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청년이나 고난 속에 절망하는 청년 모두를 청년기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명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그 사회경제적 맥락을 드러냄 없이 오늘날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청년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일자리 자체와 그 내부의 계층화 문제, 이러한 일자리를 보는 사회적 시선과 내면화된 인식,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한 일자리 및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간다.

오늘날 청년의 처지는 과거와의 비교 속에 드러난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계속 증가했다. 최근 20년 사이에 대학 졸업자는 약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약 2배나 늘었다.[1] 그런데 20대의 고용률은 하락과 정체를 반복했고,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1) 1999년 20만 명 수준이던 일반대학 졸업자 수가 2019년 약 32만 명이 되었고(약 58% 증가), 대학원 졸업자 수는 1999년 4만 7천여 명 수준에서 2019년 9만 7천여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이 되었다(약 107% 증가).

20대의 실업률은 30대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고, 20대 중에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의 질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의 비율은 급감했다.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남성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90년대생으로 오면서 사회이동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소득이나 일자리 지위의 상승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소득이 낮았던 사람은 계속 낮았고, 소득이 높았던 일부만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즉,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는 특히 20대 청년을 한편에서는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병목현상을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한편으로 교육 투자의 동기를 강화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도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상대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이른바 능력 있는 부모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회 사재기 opportunity hoarding에 나선다. 때로는 불법적인 가짜 스펙 쌓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교육을 통한 부모 지위의 대물림 경향은 서열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교육 불평등은 전체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의 세습 또는 대물림은 오늘날 청년의 처지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사회이동 또는 계층이동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부의 노른자위에 안착한 소수의 청년을 제외한 다수의 청년에게 내일의 희망을 꿈꾸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이동성이 사라진 사회는 모든 세대 중 청년에게 가장 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처를 남긴다. 희망은커녕 목숨마저 위태롭다.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23살의 대학생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비정규직으로 평택항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쓸 수 있었던 아빠 찬스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선뿐이었다. 잘 나가는 부모를 둔 청년들이 엄마, 아빠 찬스로 그럴듯한 스펙을 쌓는 동안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막노동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있다. 후자의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이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출발 조건 자체가 이미 다른 세계에 살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삶을 경험한다.

일자리 자체도 문제고 일자리 내부의 위계도 문제다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소 낯선 메뉴가 눈에 띈다.[2)]

2)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그리고 '놀자리'가 그것이다. 설자리 메뉴에는 미래의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청년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정책이, 일자리 메뉴에는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이, 살자리 메뉴에는 주택 임대 및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이, 놀자리 메뉴에는 청년의 교류 및 활력 공간 관련 정책이 들어 있다. 이 중 설자리와 일자리 정책은 사실 내용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살자리와 놀자리 정책은 앞의 정책을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결국 청년에게 필요한 자리는 '일자리' 하나로 수렴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회의 규범과 제도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일자리의 획득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부여한다.

그런데 일자리는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다. 이중화와 양극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로 나뉜다. 개별 기업은 임금 압박을 줄이고 적어도 단기적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개별 노동자는 그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초과이윤을 누려온 대기업과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대략 20%에 불과한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나머지 80%는 그 바깥의 외부 노동시장을 다양하게 형성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화 또는 분절화는 노동시장 진입을 처음으로 꾀하는 청년에게 큰 문턱이 된다. 다수의 청년은 발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고용 전망을 지니기 어렵다. 최근 청년고용이나 청년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여러 정책이 쏟아져나왔지만, 이러한 이중구조를 깨는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눈가림식 처방에 불과하다.

자본은 나머지 80%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윤 확대를 노리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주변의 시선은 노른자위인 20%에 안착하는 것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기고, 이에 도달한 사람을 질시의 시선을 담아 부럽게 쳐다보거나 손뼉을 쳐준다. 자본과 노동의 시선은 이렇게 상극으로 마주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다수는 물질적 측면과 인식의 측면 모두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상위 20%는 유형과 무형의 고용지대를 누린다. 상위 20%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경쟁의 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들이 현재 누리는 지대가 과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대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의 특성은 노동시장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20%는 과한 보상을 받고 있고, 나머지 80%는 부족한 보상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견 20%가 가져가는 초과분을 회수하여 나머지 80%의 노동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시장 자체를 규정하는 바깥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외면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총고용과 총임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이를 노동시장 내부에서 나눠 갖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3] 노동

3) 이와 같은 사고는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공제를 틀어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기업의 제한된 예산과 일자리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고, 이 게임의 희생자는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자, 그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들이다"(『쌀, 재난, 국가』, 문학과지성사, 2021, 314쪽). 이러한 기본 가정이 이철승 교수의 전작인 『불평등의 세대』(문학과지성사, 2019)부터 이어져 온 '세대 간 불평등' 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로섬 게임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간단히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뜯어고치면서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갈등 구조 또한 해체하는 것은 좁게 정의된 노동과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외부자는 물론 노동시장으로부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까지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틀은 존재하는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바로 그 유력한 틀이 될 수 있다.[4)]

낮은 기본소득은 소득의 제1 원천인 일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전제로 할 때 노동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소득보장과 관련한 무수한 사회 실험 또는 사고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볼 수 있다. 기존의 소득보장 관련 사회 실험 다수가 보여준 경험 증거는 노동 요구나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 의욕을 현저하게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기존의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본소득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종종 그 근거로 거론되는데, 이는 사실 부분적인 설명이다. 노동과 무관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대폭 줄일 동기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노동과 무관한 추가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도전정신에 충만한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즉,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도전의 영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창조적인 예술 창작이나 탐구의 영역이다. 이 영역으로의 진입은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소득과 지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소득과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에 계속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사회 구조와 이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

반박할 수 있다. 한국의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나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 증가했다.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와 함께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 또한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OECD 국가의 평균 임금 비중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대체로 감소한 사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제로섬 게임 프레임은 현실 분석이라기보다 더욱 커지는 자본의 몫은 일단 도외시하자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4) 구획된 노동과 노동시장을 가로지르는 틀을 전형적 형태의 기본소득으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교수와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정규직 등이 누리는 유급 안식년 제도는 일정한 근무연수를 충족한 정규직 일부에게만 보장된 충분한 기본소득과 재충전 시간의 보장이다. 이를 우선 임금노동자 전체로 확대하고 비임금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일,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갭이어gap year 보장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전체까지 포괄하는 일은 기본시간 보장과 결합한 기본소득의 한 형태일 수 있다.

라는 가정 아래 기본소득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면 이것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자의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청년은 결코 다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려는 후자의 청년도 기본소득이 없는 상태와 비교할 때 내부 노동시장을 향한 도전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부 노동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상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은 물론 최저생계비에 근접하는 기본소득도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총소득의 제1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소득이 여전히 총소득의 제1 원천이 되는 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탈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 의욕 저하나 노동으로부터의 일탈을 가정하며 낮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반대로 낮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노동으로부터의 탈주를 기대하는 것도 무망無望한 일이다.

기본소득은 일자리에 엉겨 붙은 사회적 시선과 의미를 바꿀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단 일자리를 소득의 원천으로서만 간주한 상태에서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득의 원천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자리에는 노동윤리와 같은 오래된 사회적 관념과 인식이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로 표상되는 위계가 스며들어 있다. 직업 위세occupational prestige는 여전히 교육 수준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자리와 관계하는 이러한 위계의 사다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경쟁하도록 만든다. 크게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내부 노동시장으로, 좁게는 직업 지위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기본소득의 보장이 이러한 일자리 위계와 그 위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지급액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러한 사회적 위계와 그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취업자 또는 비취업자인 청년에게 그 청년의 부모와 주변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시선을 던질 것이다. 놀지만 말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이왕이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니?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삶의 최저선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업 세계의 위계와 사회적 인정의 구조를 뒤흔들지 않는 한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은 계속해서 청년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물론 주변 시선의 압력이 내면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다.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 곧 노동윤리와 관계된 문제가 있다.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일을 통해서 완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일을 통해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와 같은 관념이 그것이다. 최근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공저자이자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Abhijit Banerjee와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MIT 교수의 기본소득에 관한 견해를 둘러싸고 약간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지닌 긍정적 잠재력을 기술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노동 시스템 외부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노동은 단순히 소득의 원천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회적 의미가 노동에 부여되고 있으므로 기본소득 도입 자체가 노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5)]

노동에 대한 이러한 규범과 관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일자리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적인 규범과 관념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노동자 대부분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존감, 소속감,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일이 이러한 의식과 느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위의 책을 쓴 저자들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는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는 그런 경향이 현저하게 낮으며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기존 연구가 입증한 바에 따르면,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어떤 처우를 받는가의 문제다.

한편, 일과 결부된 이러한 긍정적 인식과 의미 부여가 통상적인 직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급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다양한 자발적 사회참여와 활동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직업과 무관하게 이러한 참여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전일제 일자리의 노동자가 시간 사용이 더욱 자유로운 실업자, 은퇴자 등보다 자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경우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기본소득이 빈 곳간을 채워주는 만큼 인심은 더 날 수 있다. 여기서 인심이 난다는 말은 직접적인 보상이나 상호성의 원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그 곳간이 비어 있는 현재다. 보상과 상호성의 원리를 이미 내면화한 대중이 보상과 상호성의 원리와 거리가 먼 기본소득을 수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6)]

---

5) 최근 이 저자들이 시행한 한 서베이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연간 13,000달러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다면, 당신은 일을 그만두거나 구직 활동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응답자의 87%는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위의 책, 282쪽). 현재 미국 4인 가구의 연간 소득 빈곤선을 저자들이 추정한 대략 24,000달러(한화 약 2,700만 원)로 잡는다고 할 때, 13,000달러(약 1,500만 원)의 연간 기본소득은 가구 구성원 중 2명만 받더라도 4인 가구의 빈곤선을 넘는 꽤 높은 수준이다.

6) 한편, 이에 대한 응답으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또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하나의 경로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다. 참여소득은 기존의 일을 더욱 폭넓게 정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긍정적 성격이 있지만, 기존 노동사회의 보상과 상호성 원리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이 원리를 오히려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참여소득에는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투영된 현재의 사회적 위계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청년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본소득의 미래를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중 인터뷰에 기초한 '질적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청년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을 매우 낯설게 대했고,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이는 비단 기본소득과 관련한 경험이나 인식이 제한적인 탓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이미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 및 인식과의 충돌 문제가 크다. 이러한 충돌을 완화하며 기존 인식을 전복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능한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흔히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전제는 기본소득만으로도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없는 상태는 물론이고 비록 이러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질적 필요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물질적인 자유를 넘어 실질적인 자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 진영이 앞으로 답해야 할 문제는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는 또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가이다. 넓게는 기술의 발전, 좁게는 4차 산업혁명의 종속변수로 노동을 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위계의 전복과 자유의 확장이라는 지향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노동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일과 연결하는 것은 청년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제 막 일자리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거나 마지못해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청년이 기본소득을 용돈이나 보너스 정도로 인식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수많은 층위와 위계로 분절화된 노동사회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크기는 커진다. 기본소득이 '일'의 자유를 넓히고, '자리'의 위계를 허물어 높낮이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자유로이 다양한 일을 하고 때로는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날을 꿈꾸어 본다.